

국제회의

제2회 논 농업지대에서의 농공학의 기술자 육성에 관한 국제회의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Accreditation
and APEC Engineers Project for Agricultural Engineering in
Paddy Farming Regions



김진수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부교수

1. 머리말

제3차 세계 물포럼(World Water Forum)이 한창 진행 중인 2003년 3월 21일, 제2회 논 농업지대에서의 농공학의 기술자 육성에 관한 국제회의 및 제1회 PAWEES(논 및 물환경공학회, International Society of Paddy and Water Environment Engineering)의 학회상 수여식이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OMRON 연수센터에서 열렸다. 논 농업지대의 10개 국가 및 지역에서 41명의 학자 및 기술자들이 참석하여 각 의제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권순국 교수(전 회장), 이근후 경성대 교수(현 회장), 충남대 김태철 교수, 건국대 윤춘경 교수, 본인(충북대 김진수 교수), 5인이 참석하였는데, 이하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 제2회 논 농업지대에서의 농공학의 기술자 육성에 관한 국제회의

2002년 제1회 회의에 이어 제2회 회의도 교토

에서 열렸다(그림 1).

의제 1은 "각 국에서의 기술자 육성에 관한 최근의 움직임"에 관한 것으로 12건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교육인증 프로그램의 활동에 관한 소의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근후 교수가 "한국에서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활동"에 대하여 발표했다. 또한, "기술자 육성 프로그램, 기술사 등의 육성"에 관한 소의제에서, 김태철 교수는 "한국에서의 농공학에 대한 APEC 기술



그림 1 논 농업지대에서의 농공학의 기술자 육성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

자 계획"에 대하여, 일본 토야마 현립대학의 히로세(廣瀬慎一) 교수는 농공기술자의 윤리강령에 대하여 보고했다.

의제 2에서는 국제저널 PWE(Paddy and Water Environment)의 발행 경위에 대하여 보고되었다. "논과 물환경"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의 자연환경에 맞는 국제저널의 필요성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제안되었고, 일본이 이에 호응함으로써 학술지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 윤춘경 교수는 국제 출판사인 Springer-Verlag와 접촉을 시작한 이래 PWE의 발행하기까지의 예비활동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어 사토(佐藤羊平) PAWEES 회장로부터 PAWEES의 설립까지의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PWE와 PAWEES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는데, 윤춘경 교수는 경쟁력있고 수준 높은 PWE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2004년 제3회 국제회의의 개최 장소로서는 이근후 현 학회장의 흔쾌한 수락으로 한국으로 결정되었고, 2003 교토선언문(Kyoto Statement 2003)이 채택되었다.

3. 제1회 PAWEES의 학회상 수상식

오후에는 제1회 PAWEES의 학회상 수상식이 거행되었는데, PAWEES 차기 회장이며 공적심사위원장인 권순국 교수로부터 수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었다. 수상자로서는 우리나라의 박성우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일본에서는 사와다(澤田敏男) 전 교토대 총장, 마루야마(丸山利輔) 이시카와현립(石川縣立) 농업단기대학장(교토대 명예교수), 타부치(田淵俊雄) 전 도쿄대 교수, 타이완에서는 칸(甘俊二) 타이완대 명예교수 등으로 결정되었다. 수상자들은 모두 각 국에서 농공학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일생을 바친 뛰어난 학자들이었으며, 일본의 마루야마 교수는 관개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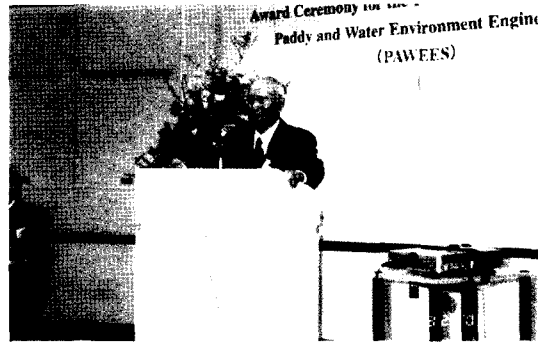


그림 3 PAWEES의 학회상 수상강연을 하는 박성우 서울대 명예교수

수분야에서, 타부치 교수는 논외의 수질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각 수상자들은 10분간씩 수상강연을 하였는데, 박성우 서울대 명예교수는 수상강연에서 한국 농공학에 일생을 바친 생애와 논외의 다원적 기능 및 평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다(그림 2).

4. 맺음말

본인이 우연히 제안한 PWE(Paddy and Water Environment)라는 명칭이 학술지의 정식 타이틀로 되어 PWE에 대한 감회는 남다르다. PWE는 2~3년 내에 SCI가 되는 것을 목표로 논농업지대의 물환경에 관한 전문학술지로서 발간되었는바, 이는 촉박한 기간 내에 학술지의 창간에 심혈을 기울인 PAWEES 사토(佐藤) 회장을 비롯한 일본측의 많은 숨은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서구의 "밭과 물환경"의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논과 물환경"의 독창적인 철학과 논리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몬순 아시아 각 국의 공동체적인 연구와 협조가 필요하며 여기에 우리의 역할은 막중하다. 갈망했던 "논과 물환경"에 대한 잔치판은 마련되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잔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